

고종기를 통해 본 퇴계의 인격

박 균 섭*

■ 차례 ■

- I. 머리말
- II. 퇴계의 고종기에 대한 해석과 부연
- III. 고종기의 상징과 퇴계의 인격
 - 1. 매화: 호생지덕(好生之德)
 - 2. 검괘: 군자유종(君子有終)
- IV. 맺음말

【국문초록】

퇴계의 죽음에 이르는 장면은 자제 문인들의 30일간의 간병기록인 고종기에 잘 나타나 있다. 퇴계의 자제와 문인들은 30일간(1570년 11월 9일~12월 8일)의 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여 그 안에 존경하는 스승의 삶과 공부의 정신을 담아냈다. 고종기를 기록한 자제 문인으로는 조카 이영, 손자 이안도, 제자 이덕홍, 유운용, 조목 등이다. 고종기를 통해 퇴계의 삶과 공부에 대한 중요한 상징과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퇴계는 매화의 상징을 통해 유교의 호생지덕을, 그리고 검괘의 상징을 통해 겸손의 미덕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퇴계의 교육철학과 공부론은 삼선생(程伊川, 尹和靖, 謝上蔡)의 사조설(整齊嚴肅, 主一無適, 其心收斂不容一物, 常惺惺)을 통해, 그리고 『성학십도』의 구상을 통해 엄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공부와 교육의 외재적 목적이 아닌, 내재적 목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성학십도』의 경계잡(제9도)은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됨을 공부하는 공간배경임을, 숙흥야매잠(제10도)은 삶의 모든 과정이 사람됨을 공부하는 시간배경임을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을 말해준다. 거경·존양·존덕성·주정은 정적 세계에 속하는 미발시의 공부이자 안의 공부이고, 궁리·성찰·도문학·주사는 동적 세계에 속하는 이발시의 공부이자 밖의 공부라는 점을 설정, 제시하였다. 퇴계의 인격은 구인(求仁)과 경공부(敬工夫)의 의미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경과 의를 함께 갖추었고,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갔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았고, 본과 말을 함께 거론했던 삶의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전체적인 삶과 공부론이 30일간의 기록, 고종기에 응축되어 있다.

주제어

고종기, 매화, 겸재, 성학십도, 경재잠, 속흥야매잠

I. 머리말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삶과 삶과 됨에 관한 이해 구조를 통해 그 실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는 인격 함양과 교육에 관한 표준이 확보되어있다. 퇴계의 시대는 사화(士禍)의 시대였다. 무오사화(1498)는 퇴계가 출생하기 2년 전에 일어났다. 이후, 퇴계는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로 이어지는 난세를 모두 거쳤다. 게다가 50세가 되던 1550년에는 형 온계 이해(溫溪 李灌: 1496~1550)가 정치적 모함과 희생을 당하는 일까지 겪었다. 이는 퇴계의 정치-교육 문제에 대한 실존적 고민과 대응의 직·간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퇴계사상의 중심은 성인지학(聖人之學), 위기지학(爲己之學), 종신사업(終身事業)을 본연으로 하는 교학체계와 공부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 퇴계사상이 교학체계와 공부론으로 집약되는 이상, 이에 대한 문인

1) 이에 대한 논의의 일단은 황금중, 「퇴계의 공부론과 『성학십도』」, 『한국교육사학』 23(2), 한국교육사학회, 2001, 321-356쪽; 박균섭, 「퇴계철학의 교육학적 해석: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8(2), 한국교육개발원, 2001, 91-111쪽; 박균

들의 추존의식을 살피는 일 역시 퇴계의 교육사상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²⁾

퇴계의 자제 및 문인들은 퇴계의 죽음조차도 의미 있게 기억해두려고 했다. 그 결과물이 퇴계의 죽음에 이르는 30일간의 기록, 고종기(考終記)이다. 이 고종기를 통해 퇴계라는 한 인물의 죽음이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퇴계사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계사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쉽지 않다. 퇴계의 고종기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앎과 삶의 본연, 인격 도야의 문제를 직접화법으로, 실존적 무게를 갖고 설명하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II. 퇴계의 고종기에 대한 해석과 부연

고종기는 퇴계의 손자 이안도, 그리고 제자 이덕홍, 유운용, 조목 등에 의해 기술되었다. 그런데 유운용과 조목은 퇴계의 장례와 관련된 기록에 등장하며, 퇴계의 병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손자 이안도와 제자 이덕홍에 의해 기술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570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스승의 곁을 지키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기록이다. 매일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섭, 「퇴계의 인격교육론」, 『한국교육』 30(1), 한국교육개발원, 2003, 33-54쪽; 안경식, 「교육공간을 향한 퇴계의 시선」, 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역사 속의 공간, 그 철학적 조망』, 2008, 19-45쪽; 박청미, 「공부의 의미 탐색: 퇴계의 '공부론'에 나타나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4, 교육철학회, 2009, 61-79쪽; 신창호, 『퇴계 이황의 함양과 체찰』, 미다스북스, 2010 참조.

2) 박균섭, 「그들은 어떤 제자였는가: 월천 조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인격교육』 4(1),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5-22쪽.

날그날의 의미심장한 장면을 특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고종기에서는 그 특별한 날들을 11월 9일, 11월 12-15일, 12월 2일, 3일, 4일, 5일, 7일, 8일로 잡았다.³⁾

1570년 11월 9일, 퇴계는 종가 제사에 참여하였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감기(寒疾)에 걸린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말았다. 기후가 편치 않다며 제사 참석을 만류하는 자제들에게, 퇴계는 “내가 이제 늙어[余今老矣] 제사를 모실 날이 많지 않으니[行祭之日不多]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不可不參]”며 참석하였다(李安道記). 이때 걸린 감기에 대해 임금 선조는 의원을 보내어 진찰토록 하였다. 하지만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퇴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의 고종기는 하나의 문단으로 처리되어있다. 퇴계는 병세가 깊어지자 11월 12일부터 가력일기(家曆日記) 쓰는 일을 중단하였다. 11월 15일에는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 이때, 기대승이 사람을 보내 편지로 문안하였다. 이에 퇴계는 자리에 누운 채 기대승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썼다. 이승을 떠나는 퇴계의 마지막 학문 활동인 이 편지에서 퇴계는 치지격물설(致知格物說)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내용을 자제들을 시켜 정서하게 하여 기대승과 정유일에게 보냈다(李安道記). 퇴계는 기대승과 8년(1559~1566)에 걸친 사단칠정 논변을 벌였지만,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달까지도 이렇게 성리학의 문제 의식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12월 2일에는 퇴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疾革). 약을 복용한 뒤에 “오늘은 장인어른의 기일이니[今日乃外舅忌日也] 고기반찬을 놓지 말라[勿用肉饌]”

3) 『退溪言行錄』, 卷5, 「考終記」; 『退陶言行通錄』, 卷5, 「考終記(凡二十二條)」; 『蒙齋集』, 卷2, 「考終記」.

4) 『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史傳」.

고 지시하였다(李德弘記). 퇴계는 평소에도 부모의 제삿날이나 왕실의 기일에는 육류를 받지 않았고, 또 보내오면 모두 돌려보냈다. 1565년 겨울에 안동 부사 윤복이 문안하고 무엇을 놓고 갔다. 나중에 그가 가고난 뒤 뜯어보니 노루고기였다. 퇴계는 그날이 제삿날이므로 편지를 써서 함께 돌려보냈다. 또 12월 24일에 월천 조목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선생을 대접했는데, 술은 받고 고기는 물리쳤다. 그날이 성종임금의 기일이었기 때문이다.⁵⁾

12월 3일에는 퇴계가 이질로 방 안에서 설사를 하였다(痢泄). 이때 매화 화분이 곁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부탁하면서, “매형에게 깨끗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다[於梅兄不潔心自未安耳]”고 말하였다(李德弘記). 이 날 병세가 위독(甚篤)해지자, 자제들에게 빌린 책들을 남김없이 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손자 안도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교정한 경주본 『심경』을 아무개가 빌려갔으니[所校慶州本心經爲某人所借去], 네가 받아와서 이를 한참봉에게 보내어[汝可推還因便送傳韓參奉] 판본 중에 틀린 곳을 고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使之釐正板本中訛舛可也]”고 하였다. 전날 집경전(集經殿) 참봉 한안명(韓安命)이 경주본 『심경』에 틀린 곳이 많았으므로 퇴계의 교정을 청하였다. 이때 그 책이 다른 곳에 있어서, 부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李安道記). 이날, 30여 명의 문인들이 병문안을 위해 밖에 대기하였으나, 병이 심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1570년 12월 4일에는 조카 영(甯)으로 하여금 사후의 일에 관한 유계(遺戒)를 받아쓰도록 하였다. 유계의 내용을 이안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첫째, 예장을 하지 말라[毋用禮葬]. 예조에서 전례에 따라 예장을 하겠다고 하면 유언이라고 일컫고 자세히 말해서 굳게 사양하라. 둘째, 유밀과를

5) 권오봉,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2001.

쓰지 말라(勿用油蜜果). 셋째, 신도비를 세우지 말라(勿用碑石). 다만 조그만 돌을 쓰되, 앞면에는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쓰고, 뒷면에는 향리(鄉里), 세계(世系), 지행(志行), 출처(出處)의 대강만을 『가례』에서 말한대로 간략히 쓰라.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면, 가령 잘 아는 기대승 같은 이는 필시 사실에도 없는 일을 늘어놓아(必張皇無實之事)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以取笑於世).⁶⁾ 내 일찍부터 뜻한 바를 내 스스로 짓고자 하여 먼저 명문(銘文: 자찬묘지명)을 지었고, 그 밖의 것은 이력저력 미루어오다가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그 초한 글이 초서 중에 있을 것이니 찾아내어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넷째, 선대의 묘갈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先世碣銘未畢至此爲終天之痛). 그러나 준비는 다 되었으니 집안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새겨 세우도록 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보고 들을 것이니, 장례의 모든 일을 반드시 남에게 물어서 하라. 집안이나 마을에 다행히 예를 아는 사람이 많으니, 널리 묻고 두루 의논해서 시속에도 맞고 고례에도 멀지 않도록 하라(李安道記).

- 6) 자신의 묘갈문을 기대승에게 부탁하지 말라면서 “사실에도 없는 일을 늘어놓아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기대승도 이미 알고 있었고, 기대승은 퇴계의 묘갈명을 작성할 때 이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앞뒤 정황으로 보아 퇴계의 유계는 기대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기보다는, 기대승의 묘갈명 작성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묘갈명에 기술될 자신의 삶의 행적 자체를 검사로 처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퇴계는 이러한 유계를 내리기 1년 전인 1569년 여름, 기대승에게 부친(선부군)에 대한 묘갈명을 간곡히 청했던 사실이 있다(『高峯集』, 卷3,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李公墓碣銘」). 그 정황에 대한 기대승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569(선조 2)년 여름에 퇴계 선생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에 ‘나의 선부군(先府君)께서는 선형(先兄)의 벼슬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당시에 이미 묘 앞에 한 비갈(碑碣)을 세우고 관향(貫鄉)과 세계(世系)를 대략 새겨 넣었는데, 돌이 이지러지고 망가져서 다시 세우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집안의 화를 겪게 되어 고쳐 세우지 못하였다. …… 이전에 새긴 것은 사실(事實)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명문(銘文)도 없다. 내 옆드려 생각건대 선인께서는 훌륭한 뜻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쓰이지 못하였고 이름이 사첩(史牒)에 오르지 못했으니, 만일 다만 이대로 인물된다면 이것은 더더욱 자식 된 마음에 무한한 서글픔이 될 것이다. 그대의 한마디 말을 얻어서 숨겨진 행적을 발양하여 후세에 보여 주기를 원한다. 이에 내가 엮은 행장 하나를 절하고 올리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의 편지를 받고 부끄러워 글을 지을 수 없다고 사양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편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나를 가르칠 수 없는 인물이라 여기지 않고 다행히 선대의 명문을 맡기시니, 의리상 진실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날 작성한 유계에는 이밖에도 집안일 처리하는 몇 조목을 덧붙였다. 이날 퇴계는 천식(疾喘)이 심했는데, 유계를 작성할 즈음에는 병이 시원스레 몸에서 떠난 듯하였다. 퇴계는 유계를 다 쓰고 나자 스스로 한번 훑어보고 봉하라고 명하였다. 조카 영이 이를 봉하고 도장을 찍고 나자, 다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자들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주위에서 만류했으나, “생사가 갈리는 마당에〔死生之際〕 마땅히 보아야 한다〔不可不見〕”고 말하며, 웃옷을 입고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내가 평소에 잘못된 소견으로〔平時以謬見〕 제군들과 더불어 종일 강론하였는데〔與諸君終日講論〕, 이마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是亦不易事也〕”며 회한을 드러냈다(李德弘記).

1570년 12월 5일에는 조카 영에게 “대간들의 을사사화에 대한 훈공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臺諫所啓今何如耶)”고 묻고, “아직까지 윤행(允幸)이 내리지 않았다(猶不允俞)”는 대답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구나(未知其終如何)”라며 재삼 탄식하였다(李德弘記). 그런데 이날은, 퇴계가 자신이 죽은 후에 들어갈 관과 염습에 쓰는 제구(壽器)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다음, 제자들에게 3, 4일 더 지탱하면 다행이라고 말했던 날이기도 했다. 그러던 날에, 조카에게 대간들이 을사위훈(乙巳僞勳)에 대해 삭탈을 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은 것이다. 죽음의 길로 빠져들면서도 국가의 정치 문제에 대한 근심과 기대를 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퇴계는 ‘식무(識務)’보다는 ‘본원(本源)’과 ‘윤행(倫行)’에 관심을 두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퇴계가 정사에 대처하는 일, 세계에 대한 기술적 지식에 제한적이었다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퇴계는 평생동안 내면의 도덕화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론에도 관심을 베푼 적이 없다. 퇴계의 정치적 관심과 대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다음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년에 조정에 나아간 것은 대개 해 볼 만한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경연에서 임금에게 강론한 것과 차차나 상소를 올려서 임금에게 진달한 것은 성학(聖學)을 밝히고 왕도(王道)를 시행하는 일에 근본을 삼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록 시대와 서로 어긋난 탓에 부합되지 않기는 하였지만, 끝내 자신의 도를 낮추어 남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은 조정에 나아가거나 시골로 물러났다고 해서 차이가 있지 않았다. 이에 좋은 정령(政令) 한 가지가 시행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혹 조처한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격성스런 기색을 얼굴에 나타냈다. 항상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일찍이 벼슬하는 것은 도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녹봉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벼슬한 40년 동안 네 임금을 거치면서 출처와 진퇴를 한결같이 의리에 따라 하여, 의리에 온당치 못한 바이면 반드시 몸을 거두어 물러났는데, 이와 같이 한 것이 총 일곱 차례나 되었다. 조정에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관직에서 물러나기는 쉽게 여기는 지조는 만 길이나 되는 절벽처럼 우뚝하였는데, 말년에 들어서서 그 지조가 더욱더 드러났다.⁷⁾

1570년 12월 7일에는 서자 적(寂)을 시켜 이덕홍에게 “너는 서적(書籍)을 맡으라(爾司書籍)”고 당부하였다.⁸⁾ 이덕홍이 명을 받고 물러나 여러 제자

7) 『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史傳」.

8) 퇴계는 차례차례 주변을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서적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이덕홍에게 맡아주기를 부탁하는 유계를 남겼다. 이덕홍은 이렇게 스승의 임종시 서책 관리를 명받을 만큼 신망이 두터웠다. 이덕홍은 스승의 죽음에 대해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지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林下筆記』, 卷16, 「爲師服喪」). 일찍이 퇴계는 독서공부에 열중했던 자신의 삶을 책벌레(蠹書蟲, 蠹魚)에 비유한 바 있다. 하지만 퇴계와 책벌레 사이에는 같음과 다름이 있다. 퇴계는 자신이 책벌레와 다름에 대해 “책벌레가 글자를 먹은들 어찌 맛을 알겠는가(蠹魚食字那知味)”라고 하면서 하지만 자신은 “하늘에서 여러 책을 내리니 즐거움이 책속에 있다(天賦羣書樂在中)”고 하였다(『退溪集』, 卷3, 「東齋感事十節」). 퇴계는 “책속에는 참된 맛이 들어있어(書中有眞味) 살찌고 배부름이 고기보다 낫다(飮沃勝珍廩)”고 말하였다(『退溪集』, 卷3, 「山堂夜起」). 공자와 안연의 공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이천의 해석(『二程全書』, 卷43, 「顏子所好何學論」) 이래 유교사상의 배움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위기지학, 즉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공부를 의미했다. 위기지학

들과 함께 점을 쳐 겸괘 ‘군자유종(君子有終)’의 효사(爻辭)를 얻었다. 이에 김부륵 등이 놀라 바로 책을 덮었지만 그들의 얼굴빛은 모두 변해 있었다(李德弘記).

1570년 12월 8일, 이날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다. 당시의 하루를 이덕홍은 다음과 같이 압축하여 기록하였다.

아침,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명하셨다(朝命灌盆梅). 이 날은 날씨가 쾌청하였는데(是日晴) 오후 5시경이 되자(酉初) 갑자기 흰 구름이 몰려들더니(忽白雲坌集), 지붕 위에 눈이 내려 한 치쯤 쌓였다(宅上雪下寸許). 조금 있다가(須臾) 선생은 자리를 정리하라고 명하셨다(先生命整臥席). 부축하여 일으켜드리자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扶起而坐逝). 그러자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개었다(卽雲散雪霽).(李德弘記)

이상이 퇴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한 달 간의 기록이다. 그러나 고종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종기의 후반부는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일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퇴계가 12월 8일 오후 5시경에 세상을 떠나자, 원근에 사는 지인들이 서로 다투어 모여 문상하고, 비록 이전에 오가지 않던 사람들도 거리에서 슬퍼하였다는 기록, 백성과 하인들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한다(李安道記). 유밀과를 쓰지 말라던 유계에 대한 해석과 대응장면도 인상적이다. 퇴계는 유계에서, “유밀과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예전」)에 환갑잔치나 혼인, 제향 때 외에 유밀과를 사용하는 자는 장 60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음식 사치를 법으로 규제할 정도로 이는 삶의 문제의식을 규정하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이를 법적 규제

과 교육의 내재적·본질적 목적을 원천적으로 보여주는 입장이다.

의 차원을 넘어 사치가 일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한 것이다. 그런데 퇴계의 유계에 대한 해석은 둘로 갈렸다. 해석 1과 2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석 1: 세속의 폐단이 아주 굳어져 하나의 습관을 이루었으므로, 선생이 이 경계는 다만 자기 한 집안만 경계로 삼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 세상의 폐단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선생은 평소에 검소하고 수수해서 아무리 풍성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만일 한번이라도 남이 만들어온 유밀과로 제사를 받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폐단의 시초가 될 것이니, 남이 가지고 와서 제사에 드리는 것까지도 거절하여 세속의 폐단을 고치고, 선생의 뜻을 따르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해석 2: 유밀과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다만 한 집안의 일을 두고 한 말이지, 어찌 이를 만들어 와서 제사에 드리는 것까지 쓰지 말라고 한 말이겠는가. 사람들이 성의를 다해 이를 가지고 와서 제사에 드리고자 하는데, 선생의 남긴 뜻이라 하여 거절한다면, 그것은 선생이 평소에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를 받드는 일이 아니다.

해석 1과 2가 서로 맞서는 상황에서 정유일은 일찍이 이 일에 대해 스승에게 그 취지를 물은 적이 있다면서, 해석 2를 지지하였다. 결국 유밀과는 집 안에서만 만들어 쓰지 않기로 하고, 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의 것은 모두 받기로 하였다(柳雲龍記).

일찍이 퇴계는 아들 준(鶻)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으면 예조(該曹)에서는 반드시 전례에 따라 예장(禮葬)하기를 청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유언이라고 핑계를 대고서 상소를 올려 굳게 사양하라”고 하였다. 이 준은 두 번이나 상소하여 예장을 사양하였다. 하지만 임금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끝까지 예장을 사양할 수는 없었다.⁹⁾ 1571년 3월 장제를 주재하기 위해 예장가정관(禮葬加定官)으로 퇴계의 문인 김취려(金

9) 『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史傳」.

就礪)가 내려왔다. 사람들은 김취려가 예장가정관으로 내려오자, “김취려가 선생을 제일 오래 모셨으니[就礪侍先生最久],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不可謂不知先生者]”고 하면서 선생의 뜻에 따라 장례를 치러줄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다. 김취려는 예장을 감독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퇴계의 유언과 상치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김취려의 일 처리는 한마디로 너무 번거로웠다. 석인(石人)이나 석상(石床)은 너무 사치스럽고 컸으며, 망주석(望柱石)과 혼유석(魂遊石)은 나라의 법(國典)을 넘어 썼으며, 지적석(地籍石)은 반드시 전석(全石)을 쓰라고 강요하였다. 조카 영은 김취려와 다투다 못해 “숙부의 유계는 내가 받아쓴 것입니다[叔父遺戒吾所書也]. 일찍이 이와 같이 될 줄 알았더라면[早知如此], 유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不若不戒之爲愈也]”라며 눈물을 흘렸다.

비문과 관련하여 당시 대제학 박순(朴淳)에게 묘갈명(誌文)을 구했으나, 박순이 쓴 묘갈명이 퇴계의 사연과 행적이 정확하지 않아 이를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그 난처함은 상상을 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제자 정유일은 “제지관이 이미 왕명으로 썼으니[以爲題誌官既以王命書之], 지금 이를 쓰지 않으면[今若不用] 그것은 임금의 하사한 것을 버리는 일이다[是棄上賜也]. 그리고 대학사는 한 나라 사문의 영수인데[且大學士一國斯文之領袖], 그에게 글을 청해서 쓰지 않으면[請其文而不用] 누가 감히 이를 대신해서 짓겠는가[誰敢有代製者]”라고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일의 결말은 제자들의 의논 끝에 박순의 글을 쓰지 않기로 하고 결국 기대승에게 부탁해서 묘갈명을 짓기로 하였다(柳雲龍記). 이는 결국 제자들이 스승의 유계를 여긴 셈이 되었다. 묘갈문을 쓸 당시 기대승도 퇴계가 유계에서 남긴 “가령 잘 아는 기대승 같은 이는 필시 사실에도 없는 일을 늘어놓아[必張皇無實之事]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以取

笑於世”고 했던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기대승은 퇴계의 유계를 의식하면서도 “남기신 경계 말씀을 엮드려 생각하니, 감히 어길 수가 없으나 묘도에 계시하여 후세에 알리는 것을 또한 안 할 수 없으므로 그 대략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말을 붙인다”며 묘갈명을 써내려갔다.¹⁰⁾

퇴계가 유계를 통해 기대승을 언급한 일이 있기도 해서, 기대승의 퇴계에 대한 묘갈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승이 지은 묘갈명에 대해, 그것도 퇴계를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셨던 조목의 평이 나왔다. 퇴계의 제자 조목의 특별함에 유의한다면, 그의 평은 예사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었다. 조목은 기대승의 묘갈명에 대해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似未穩)”, “자세하지 못한 것 같다(似未親切)”고 문제 삼았다. 이는 퇴계가 염려했던 바의 “사실에도 없는 일을 늘어놓아[必張皇無實之事]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以取笑於世]”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일은 고사하고 스승 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리하여 사실을 왜곡, 폄하한 기술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었다.¹¹⁾

기대승이 지은 선생의 묘갈문에 “중년 이후로는[中歲以後] 바깥일에 생각을 끊었다[節意外慕]”고 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선생은 타고난

10) 『高峯集』, 卷3, 「退溪先生墓碣銘 先生自銘並書」.

11) 기대승의 퇴계선생묘갈명에는 “중년 이후로는[中歲以後] 바깥일에 생각을 끊었다[節意外慕]”는 말이 나온다(『退陶言行通錄』, 卷1, 「先生自銘 附後敘略」; 『高峯集』, 卷3, 「退溪先生墓碣銘 先生自銘並書」). 그런데 퇴계의 자찬묘지명에 “중년에는 어찌하여 학문을 즐겼고[中何嗜學] 만년에는 어찌하여 벼슬을 하였나[晚何叨爵]”, “학문은 구할수록 멀어져가고[學求愈邈] 벼슬은 버릴수록 몸에 얽힌다[爵辭愈嬰]”, “관직에 나가서 어긋난 일들[進行之踏] 물러나서 갈무리는 곧게 하였네[退臧之貞]”라는 말이 나온다. 기대승은 퇴계의 ‘중년’과 ‘만년’, ‘학문’과 ‘벼슬’, ‘나아감’과 ‘물러남’의 구분법을 따른 듯하다. 역설적이게도 기대승은 퇴계의 자기 평가에 가장 근접한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조목으로부터 “온당치 못한 것 같다”, “자세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불만을 샀다고 말할 수 있다.

기품이 지혜롭고, 품성이 독실하여 젊어서부터 조용히 학문하기를 좋아하였고, 권세나 이익, 호화 따위에는 담박하였는데, 어찌 중년을 기다려서야 바깥일에 생각을 끊었다 할 것인가. 또 기대승의 생각은 주로 이치를 연구하고 시비를 따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선생의 평소 독실하게 실천한 단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친절하지 못한 것 같다.(趙穆記)

고종기 말미의 쟁점을 통해, 스승의 가르침과 유언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스승의 유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정치·사회적 역학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형식주의, 그리고 관념과 현실 간의 격차와 괴리를 염두에 두는 일도 중요하다. 고종기는 퇴계의 삶과 사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석 양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는 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Ⅲ. 고종기의 상징과 퇴계의 인격

1. 매화: 호생지덕(好生之德)

매화를 대상으로 삼아 드러나는 퇴계의 품성은 고종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퇴계는 병이 깊어지자 깨끗지 못한 몸으로 매화를 대할 수 없다 하여 결의 매화 화분을 옮기게 했고, 임종하던 날 아침에는 매화 화분에 물을 주도록 하였다. 이 정도라면 매화는 퇴계에게 하나의 완상물이 아닌 고결한 인격체나 다를 바가 없는 대상이다.

고종기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듯이, 퇴계의 삶은 매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난다. 퇴계의 시에는 매화를 소재로 삼아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표현한 구절이 많다. 퇴계는 1541(중종 6)년에 동호독서당에서 사가독서

하면서도 매화에 관한 시를 읊었다. 독서당의 부속 건물인 망호당을 배경으로 삼아 매화 시를 짓기도 하였다.¹²⁾ 퇴계의 매화에 대한 사랑은 도산에 은거하면서 더욱 깊어져 겨울 추위에 꽃망울이 상한 매화를 가슴 아파하며 지은 시도 있다.¹³⁾ 퇴계가 1568년 7월부터 1569년 3월까지 8개월간 서울에 머물렀을 때에는 매화를 매선(梅仙)으로 의인화하고 자신은 도선(陶仙)이라 칭하면서 둘 사이를 벗(知己)으로 표현한 시도 있다.¹⁴⁾ 매화에 대해 읊은 시 중에, 앞의 시에서는 매증주(梅贈主), 뒤의 시에는 주답(主答)이라는 설명이 붙은 시에서는 매화가 주인에게 서울에 1년간이나 머물렀던 것을 탓하자 주인은 매화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노라고 답하는 장면도 등장한다.¹⁵⁾ 늘그막에 세속으로 나간 주인을 탓하지만 그래도 꽃필 때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위로하는 매화와 그동안의 그리움을 고백하면서 내적 갈등을 토로하는 주인은 마치 오래된 친구같이 느껴진다. 고졸하면서도 청아한 매화의 이미지는 완벽한 인격을 갖춘 이상적 인간의 투사체로 여겨졌다. 한번 웃음에도 뜻이 통할 정도이며, 둘의 만남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화에 대한 교감은 깊다.¹⁶⁾ 도연명이 국화를, 주렴계가 연꽃을 통해 자신들의 정신적 높이를 형상화했다면, 퇴계는 매화를 통해 자신의 견결한 삶의 자세를 드러냈다. 이 정도에 이르면, 퇴계와 매화의 관계는 감상 주체와 완상물의 수준을 넘어서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 퇴계의 삶은 자연과 인

12) 『退溪集』, 卷1,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 「湖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 「望湖堂尋梅」.

13) 『退溪集』, 卷5, 「陶山梅爲冬寒所傷歎贈金彥遇兼示愼仲惇斂」.

14) 『退溪集』, 卷5, 「漢城寓舍盆梅贈答」, 「盆梅答」.

15) 『退溪集』, 卷5, 「季春至陶山山梅贈答」.

16) 『退溪集』, 卷4, 「陶山訪梅」, 「代梅花答」.

17) 우응순, 「16세기 내면적 지식인과 '교인'의 길: 퇴계 이황」, 민족문화사연구소 고

간에 대한 연속적 인식과 공존, 그리고 호학적 삶의 태도를 특징으로 하였던 것이다.

고종기에는 매화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한다. 설사를 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매화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1570년 12월 3일), 마지막 작별의 날(1570년 12월 8일) 아침에는 매화에 물을 주고 떠나는 퇴계의 삶은 예사로운 설정이 아니다.

퇴계는 매화와 자신과의 간격을 없앴으로써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측은지심에서 발원한다. 퇴계는 나의 몸에 충만한 측은지심이 만물에 관류하여 막힘없이 두루 통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였다. 퇴계의 학문은 남에게 내세우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는 학문이며, 정치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수양을 위한 학문이다.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命灌盆梅]”고 한 말은 그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마지 않았던 순일한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호생지덕은 바로 인(仁)이자 이(理)이며 이는 퇴계가 평생에 걸쳐 사색했던 삶과 공부의 근본 명제였다.¹⁸⁾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매화에게 물을 주고 가는 그 모습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덕으로 가득차 있다.¹⁹⁾ 퇴계는 인(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모두 이 본성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외경심을 어김없이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²⁰⁾ 이렇게 퇴계에게서 매화는 단순한 시재(詩材) 이상의, 만물일체의 마음을 기르는 대상이었다. 인(仁)이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려는 따

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 219-221쪽.

18) 최근덕, 『한국유학사상연구』, 철학과 현실사, 1992, 272-274쪽.

19) 『書經』, 卷2, 「大禹謨」.

20) 홍원식, 「퇴계의 여가 생활」, 홍승표 외, 『동양사상과 탈현대의 여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99-100쪽.

뜻한 마음이며, 그러기에 인(仁)을 구하는 일과 경공부(敬工夫)는 하나로 연결된다. 인(仁)이란 생명을 움트게 하는 씨앗을 일컫기도 한다. 인(仁)의 천지만물과 일체됨의 상태를 일컬어 마음의 덕(心之德), 사랑의 이치(愛之理)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천지만물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것,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불인(不仁)의 상태이기에 경공부(敬工夫)와 상치될 수밖에 없다.

퇴계는 임종하면서 “자리를 정돈하라[命整臥席]”고 했고 “붙들어 일으켜드리자 앉으시더니 이내 숨을 거두셨다[扶起而坐逝]”고 했다. 퇴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잠시도 늦추지 않았던 경의 태도, 공부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고종기의 특별한 장면은 “날씨는 맑았다[日晴]”는 그날의 일기와 함께 “구름이 모여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雲集雪下]”는 임종전의 상황과 “구름이 흩어지고 흩날리던 눈도 개었다[雲散雪霽]”는 임종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기록한데서 찾을 수 있다. 매화에 대한 호생지덕을 출발점으로 삼은 퇴계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죽음 전의 동적 세계와 죽음 후의 정적 세계를 통관하는 퇴계의 학문적 지향과 궤를 같이한다.

주자학의 공부론은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기 전과 후의 관계에 주목하는 가운데, 거경(居敬)·존양(存養)·존덕성(尊德性)·주정(主靜)은 정적 세계에 속하는 미발시(未發時)의 공부이자 안의 공부이고, 궁리(窮理)·성찰(省察)·도문학(道問學)·주사(主事)는 동적 세계에 속하는 이발시(已發時)의 공부이자 밖의 공부라는 점을 설정,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성격의 공부는 상반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며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관계에 있다.²¹⁾ 퇴계는 이를 인격의 존재론적

21) 최진덕, 「퇴계 성리학의 자연도덕주의적 해석」, 김형효 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16-217쪽; 박균섭, 「퇴계철학의 교육학적

성격으로 설명하면서 마음의 미발지전(未發之前)과 이발지제(已發之際)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²⁾ 미발시와 이발시에 대한 구분은 주자학의 본체론과 공부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퇴계가 말하는 인격자의 모습은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된 자를 일컫는 인(仁)의 체현자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의 유학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사실(天人一物)이며, 안팎이 하나의 이치(內外一理)라는 철학적 신앙 위에 근거해 있다.²³⁾ 하늘과 내가 애초에 하나(天人無間, 天我無間)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이 하늘처럼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 견디기 어렵다는 세계관이었다. 원래의 하늘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회복해야만 했고, 그 회복의 방법이 퇴계의 수양공부론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퇴계학의 핵심은 수양을 통해 하늘이었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인격자를 일컬어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된 자, 인(仁)의 체현자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대승은 퇴계의 인격에 대해 “오로지 학문 탐구에 힘써서[專精講究] 미묘한 진리를 환히 꿰뚫었고[洞朗微妙]…… 날마다 공부를 새롭게 하고 위로 천리를 통달하여[蓋其日新上達] 이를 그치는 일이 없었다[有不能已者]”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퇴계의 삶과 공부의 정신을 총괄적으로 제시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2. 검과: 군자유종(君子有終)

고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퇴계의 성인(聖人)을 지향하는 공

해석: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8(2), 한국교육개발원, 2001, 91-111쪽.

22) 『退溪集』, 卷24, 「答鄭子中別紙」, 『退溪續集』, 卷8, 「天命圖說」.

23)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신학적 해석」, 김형효 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4-25쪽.

24) 『高峯集』, 卷3, 「退溪先生墓碣銘 先生自銘並書」.

부, 즉 구인(求仁)-경공부(敬工夫)의 체계가 오롯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퇴계는 일찍이 인(仁)을 체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경(敬)이라고 보았다. 성학을 엄밀하게 규정했던 『성학십도』에서 “이 십도는 모두 경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고, “경(敬)은 성학(聖學)의 시작과 끝이 된다”고 말하였다.²⁵⁾ 『성학십도』는 삶을 구성하는 일상사 모두가 인격을 갖추어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작동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재잠(敬齋箴)(제9도)은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됨을 공부하는 공간배경(用工地頭)임을,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제10도)은 삶의 모든 과정이 사람됨을 공부하는 시간배경(用工時分)임을 말해준다. 퇴계는 최고의 존재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 수양방법으로 정이천(程伊川), 윤화정(尹和靖), 사상채(謝上蔡)의 경공부(敬工夫)에 주목하였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엄숙하게 한 상태를 일컫는 정이천의 ‘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의를 하나로 집중하여 다른 데로 쏠리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정이천의 ‘주일무적(主一無適)’, 마음을 수렴하여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한 상태인 윤화정의 ‘기심수렴불용일물(其心收斂不容一物)’, 항상 깨어있는 상태인 사상채의 ‘상성성(常惺惺)’으로 분류된다. 이를 퇴계는 3선생 4조설이라 명명하면서, 4조설의 지향과 의미는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퇴계는 4조설에 대해, 그 중에서도 정이천의 ‘정제엄숙’이 중심을 차지하며, 나머지 3조설은 ‘정제엄숙’으로 포괄된다고 보았다. 정제엄숙의 세계에 대해 정유일은 “선생의 학문은 정주(程朱)를 표준으로 삼았다. 경과 의를 함께 갖추었고[敬義夾持]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갔으며[知行並進] 안과 밖이 한결같았고[表裏如一] 본과 말을 함께 거론하였다[本末兼舉]”고 지적하였다.²⁶⁾ 일찍이 퇴계가 경에 대해 백가지 병을 다스리는 약이라고 힘주어 말한 까닭이 여기에

25) 『退溪集』, 卷7, 「進聖學十圖筭并圖」.

26) 『退溪言行錄』, 卷1, 「學問」.

있다.²⁷⁾

퇴계는 『성학십도』의 제6도~제10도(心統性情圖, 仁說圖,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에 대해, 심성에 근원을 둔 것이며 그 요체는 일상생활에 힘쓰고 경외(敬畏)를 숭상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퇴계가 이해하는 경은 두려움에 가까운 심적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가 35세나 연하인 율곡을 만나보고 후생가외(後生可畏)라고 했던 것도, 그의 경의 마음상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⁸⁾ 경공부를 통해 그려낼 수 있는 퇴계의 삶과 됨의 세계는 그의 고종기에 오롯이, 특별한 상징으로 제시되어있다.

1570년 12월 7일,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병세가 깊어지자 이덕홍이 동문들과 점을 쳤는데 겸괘(謙卦)의 '군자유종(君子有終)'의 효사(爻辭)를 얻었다.²⁹⁾ 이는 『주역』 15괘인 겸괘의 구삼효(九三爻)를 얻

27) 『退溪集』, 卷29, 「答金而精」.

28) 『退溪集』, 卷23, 「答趙士敬」. 한기언, 「전통교육에서 본 한국인」, 『정신문화』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5-56쪽.

29) 『退溪言行錄』, 卷5, 「考終記」. 퇴계는 유계를 내릴 무렵 병이 위독해지자 집안 식구들이 혹시라도 기도(祈禱)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간절하게 경계시켜 못하도록 하였다(『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史傳」). 이덕홍의 점치는 행위도 그러한 경계사항에 속한 것이었을 것이다. 퇴계는 『주역』에 대해 평생 공부하였으나, 공부의 본연은 상수와 역학(象數派易學)이 아닌 의리파 역학(義理派易學)의 역리(易理) 해석에 있었다. 의리파 역학의 역리 해석에 의하면, 오행의 상극과 상생이 흉하거나 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오행 자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이를 둘러싼 조건에 달려있다(廖名春·康學偉·梁韋茲,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439-467쪽). 일찍이 공자도 인간사를 해석하면서 이를 천도나 자연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공자가 아끼던 제자 안연의 죽음에 대해 “하늘이 나를 망쳤다(天喪予)”(『論語』, 第11, 「先進」)고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자는 인간의 존망과 득실이 천도나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덕에 합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천도나 자연은 결코 사람의 길흉을 결정할 수 없고, 길흉이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유구조는 밖에 있는 것(在外者)를 구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在我者)을 구하라는 인격을 향한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었다는 말이다.³⁰⁾ 겸괘 구삼(九三)의 효사(爻辭)에서는 “겸손함을 애써 실천하는 군자로다[勞謙君子]. 끝까지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有終吉]”고 하였다. 그리고 겸괘 구삼(九三)의 상사(象辭)에서는 “겸손함을 애써 실천하는 군자는[勞謙君子] 만민이 따른다[萬民服也]”고 하였다. 겸괘의 상괘는 곤괘(☵ : 땅)이고 하괘는 간괘(☶ : 산)이다. 겸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랫사람(1호, 2호)이나 윗사람들(4호, 5호, 6호)은 빈약하고 실력이 없다. 그래서 구삼은 오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 구삼의 위치는 하층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또 상층부에 진입한 상태도 아니다. 만일 이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지키지 않고 가벼이 행동한다면 상층부만이 아니라 하층부로부터도 외면 받고 배척당할 수 있다.³¹⁾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이다. 그런데 겸손의 본질은 나서거나 앞서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없다. 구삼은 가만있기만 해도 거만하다는 평을 듣게 된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를 두고 “겸손함을 애써 실천해야 한다[勞謙]”고 했다(謙卦, 九三, 爻辭). 그런데 소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성인은, 군자와 달리 소인은 한껏 자득하려는 욕심이 있으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게 소인은 겸손을 보이고자 힘쓴다 할지라도, 이를 편안히 행하고 굳게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가 있을 수 없다.

겸괘는 상괘가 ‘땅’이고 하괘가 ‘산’이다. 겸괘의 괘상은 땅 속에 산이 묻혀있는 모습이다. 이는 겸양을 미덕으로 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인

이 한다. 이는 퇴계의 일생을 관찰하는 삶과 공부의 기본 정신이기도 했으며 그것을 종합해서 드러낸 것이 바로 겸괘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30) 『周易』, 卷1, 『謙』.

31) 이기동, 『주역: 하늘의 뜻을 묻다』, 열림원, 2005, 181-184쪽.

격 함양의 성격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연과 물리의 세계에서는 산은 본디 땅 위에 솟아있는 게 정상이지만, 음양과 역리의 세계에서는 이와 달리, 땅 밑에 높은 산이 있는 형상이다. 위로 솟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밑에 묻혀있는 산의 형국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작은 성취에 가려 큰 갈래를 잡아내지 못하는 뒤틀린 삶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잘못된 인간유형의 대표값에 대해 공자는 영함을 일삼고 끈지 못한 자[便辟], 아침과 기쁨에 힘써 미덥지 못한 자[善柔], 말에만 익숙하여 견문의 실상이 없는 자[便佞]를 든 바 있다.³²⁾ 퇴계는 만단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잘못된 삶의 양상에 대해, 이는 옥망구덩이의 일[慾坑之事]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³⁾ 인간은 누구나 옥망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바, 이는 겸괘의 이미지와 메시지가 인격 도야의 문제를 어떻게 포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추켜올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 잘난 듯이 처신한다. 어떤 이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행동하고 어떤 이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한다. 어떤 이는 남의 단점을 망령되게 책망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환난에 쉽게 덤벼든다. 무릇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람의 원망과 분노를 사기에 족하여 계속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소에 깊이 걱정하는 일들이다.³⁴⁾

고종기에 따르면, 퇴계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소에 잘못된 소견으로[平時以謬見] 제군들과 더불어 종일 강론하였는데[與諸君終日講論], 이마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是亦不易事也]”고 하였다(李德弘記). 퇴계가 일찍이 율곡을 두고 두려움에 가까운 정서를 표출했던 것도, 그

32) 『論語』, 卷16, 「季氏」.

33) 『退溪集』, 卷12,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34) 『退溪集』, 卷31, 「答禹景善」.

의 후학을 대하는 겸손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⁵⁾ 퇴계가 『성학십도』를 구성할 때, 율곡의 논평을 받아들여 애초의 순서를 바꾸어 제7도에 인설도, 제8도에 심학도를 배치했던 사실 역시 평생의 삶과 삶이 겸손의 자세로 일관되었음을 보여준다.³⁶⁾

퇴계의 자성하고 연구하는 진면목은 세상을 떠나기 23일 전(1570년 11월 15일), 병상에서 기대승에게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의 잘못을 시인한 글을 작성하여 이를 기대승과 정유일에게 보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겸괘의 자장 안에서 펼쳐지는 인격의 모습은 특히 『자성록』에 잘 드러나 있다. 『자성록』은 제자들에게 답한 22편의 편지글을 모은 책으로, 여기 붙인 머리말은 도학과 이학공부에 열중했던 퇴계의 겸손이 묻어난다. 『자성록』은 이름 그대로 자기 성찰과 겸손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다. 퇴계는 평생동안 백여 명의 사람과 천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편지를 나눈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인, 제자, 벗, 친족 등인데, 이들과 나눈 편지도 주로 50세 이후의 편지가 대부분이다.

옛 성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하게 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恥躬之不逮也). 그런데 벗들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일이지만 부끄러울 따름이다(不勝其愧矣). 오랫동안 서로 편지를 나누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직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있는데 나는 벌써 잊은 것이 있다. 편지를 보낸 사람과 내가 함께 잊은 것도 있다. 이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斯不但可恥). 마음을 거의 잡지 못하고 살아온 것과 같으니 두렵기 그지없다(可懼之甚也).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옛 책장을 뒤져보았다. 벗들이 보내 온 편지 중 다행히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찾아내었다. 이를 옮겨 적어 책상에 두고 때때로 펼쳐보면서 내 삶을 반성하였다. 편지를 제

35) 『退溪集』, 卷23, 「答趙士敬」.

36) 『孝宗實錄』 孝宗 1年 5月 1日.

대로 보관하지 못한 까닭으로 수록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하기가 이 처럼 편지를 모아 책을 만든다고 한들 내 삶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558년 단오 다음날에 늙은이 퇴계 씬.³⁷⁾

퇴계는 이 짧은 글에서도 “부끄럽다(恥, 愧, 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해서 스스로의 말과 실천을 반성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퇴계는 벗들이라고 한 제자들에게 부끄러움, 그것도 두렵기 그지없는 부끄러움에 대해 말하면서, 반성을 거듭하는 삶의 자세를 가다듬었다.³⁸⁾ 이런 뜻은 자찬묘지명의 “학문은 구할수록 멀어져간다[學求愈邈]”는 고백에 응축되어있다.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유교 교육의 기간 정신이었다.

훌륭한 덕이 있으면서 덕이 있다고 우쭐대지 않는 자세, 겸손으로 꾸려가는 삶이야말로 어디가든 형통함에 이르는 길이다. 스스로 낮추어도 남이 더욱 존경하고, 스스로를 감추어도 덕이 더욱 드러나 빛난다.³⁹⁾ 퇴계의 일생은 이렇게 남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삶이었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공경의 자세로 자기 수양에 힘쓸 수 있었다.⁴⁰⁾ 스스로를 낮출수록 사람들이 더욱 높여주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수록 덕이 더욱 빛나고 드러난다는 역설은 퇴계의 인격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어법이다. 이에 대해 기대승은 “겸허하고 공손하여[謙虛卑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하였다[若無所有]”고 평하였다.⁴¹⁾

37) 『自省錄』, 卷首, 「序」.

38) 신창호, 『퇴계 이황의 함양과 체찰』, 미다스북스, 2010.

39) 『三經釋義』, 易上, 「謙」.

40) 『退溪言行錄』, 卷1, 「學問」, 「成德」, 「教人」, 卷2, 「講辨」, 「資品」, 「律身」.

41) 『高峯集』, 卷3, 「退溪先生墓碣銘 先生自銘並書」.

IV. 맺음말

퇴계의 고종기에 주목한 것은, 앎과 삶과 됨의 관계와 존재 양상이 분리, 분절의 상태에 빠진 오늘날, 이를 통해 삶의 본질과 교육의 본연에 관한 설명 기준과 대안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퇴계 사상을 통해 교육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고 수행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삶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격교육의 논거를 말하자면, 그것은 지적 편중교육이어서도 안 되며 인간 행동의 외위적·물량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이어서도 안 된다. 교육의 외재적·수단적 측면은 넘쳐나는 반면, 교육의 내재적·본질적 측면이 도외시되는 현실은 분명 교육의 위기 내지 문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앎과 삶과 됨의 응결체를 기쁨, 보람, 즐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문화는 달리 말하자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 본연의 문제를 의미심장하게, 간절한 언어로 설명하는 장면을 바로 퇴계의 고종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퇴계가 생각하는 인격자란 성인지학, 위기지학, 종신사업을 통해 이루어낼 인간상으로, 인간 최고의 존재 상태를 일컫는다. 최고의 존재 상태에 이르는 길은 서로간의 관계 교섭과 교호 작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정신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주재 현상이다. 퇴계가 보기에, 주체가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운명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체 자신에 달린 문제였다. 퇴계는 이렇게 최고의 존재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몸 밖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몸 안에서 반성을 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삶은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체 자신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論語』. 『周易』. 『書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退溪全書』. 『高峯集』.
『栗谷全書』. 『鶴峯集』. 『蒙齋集』. 『林下筆記』. 『孝宗實錄』.
- 권오봉,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2001.
-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신학적 해석」, 김형효 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140쪽.
- 박균섭, 「퇴계철학의 교육학적 해석: 공부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8(2), 한국교육개발원, 2001, 91-111쪽.
- 박균섭, 「퇴계의 인격교육론」, 『한국교육』 30(1), 한국교육개발원, 2003, 33-54쪽.
- 박균섭, 「그들은 어떤 제자였는가: 월천 조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인격교육』 4(1),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5-22쪽.
- 박청미, 「공부의 의미 탐색: 퇴계의 '공부론'에 나타나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4, 교육철학회, 2009, 61-79쪽.
- 신창호, 『퇴계 이황의 함양과 체찰』, 미다스북스, 2010.
- 안경식, 「교육공간을 향한 퇴계의 시선」, 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역사 속의 공간, 그 철학적 조망』, 2008, 19-45쪽.
- 우응순, 「16세기 내면적 지식인과 '고인'의 길: 퇴계 이황」,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 203-224쪽.
- 이기동, 『주역: 하늘의 뜻을 묻다』, 열림원, 2005.
- 최근덕, 『한국유학사상연구』, 철학과 현실사, 1992.
- 최진덕, 「퇴계 성리학의 자연도덕주의적 해석」, 김형효 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41-236쪽.
- 한기연, 「전통교육에서 본 한국인」, 『정신문화』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5-56쪽.
- 홍원식, 「퇴계의 여가 생활」, 홍승표 외, 『동양사상과 탈현대의 여가』,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 황금중, 「퇴계의 공부론과 『성학십도』」, 『한국교육사학』 23(2), 한국교육사학회, 2001, 321-356쪽.
- 廖名春·康學偉·梁韋茲.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中文摘要

通过考终记分析退溪人格

朴均燮

退溪考终记描写的是退溪先生临终之际的状况。退溪的子弟和门人们用了30天(1570年11月9日-12月8日)的时间,以日记的形式记了尊敬的先生临终之际。考终记的制作参与者有他的侄子李甯,孙子李安道,弟子李德弘,柳云龙,赵穆等。通过考终记我们可以了解到,退溪用梅花象征了好生之德,用谦卦象征了谦逊的美德和教育的价值。退溪的教育哲学和功夫论主要收集了整齐严肃(程伊川),主一无适(程伊川),其心收敛不容一物(尹和靖),常惺惺(谢上蔡)[三先生的四条说]。《圣学十图》是退溪对其儒学思想更深层的表现作品。对圣学而言,并不是外在的形式,而是内在的本质性。可以说是集齐了人间所有时间与空间中一切动作。敬斋箴(第九图)中说,所有人在生活的过程中用的是空间背景,夙兴夜寐箴(第十图)中说,说有人在生活过程中用的是时间背景。从居敬·存养·尊德性·主静中看的出来是属于静的世界;穷理·省察·到问学·主事中看到的是属于动的世界。三先生的四条说对退溪的理解和适用给与了认可。退溪的人格带有求仁和敬功夫的意义。还有,然我们看到了敬义夹持,知行并进,表里如一,本末兼举的人格。

关键词

关键词: 考终记, 梅花, 谦卦, 圣学十图, 敬斋箴, 夙兴夜寐箴.

▪ 논문투고일 : 2011.5.27 심사완료일 : 2011.7.29 게재결정일 : 2011.8.5